

# “극단적 대립·갈등 중도로 풀어야”



## 시인 김지하 회계사 특별 강연

시인 김지하씨가 4월 20일 서울 회계사주지 수경에서 특별강연을 했다. '타태아 기원가천도를 위한 49제' 기간 내 열린 강연에서 김지하씨는 불교와의 인연을 소개하며 불교의 시대적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타태아기원가천도를 위한 49제는 생명 의 중요성과 더불어 성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출 수 있도록 청소년들과 성인불자들을 위해 마련됐다.

계절이 이때쯤이었습다. 제가 있던 서대문 감옥은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지었던 건물이기 때문에 유리창이 없었습니다. 쇠창살 사이로 민들레 씨와 가축나무 씨가 날아 들어와 흙먼지와 함께 쌓입니다. 비가 온 뒤 짙을 틈을 보아 그 모습을 보고 까닭 없이 눈물이 터졌습니다. 몇 시간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허공에서 '생명' '생명' '생명'이라는 울림이 메아리쳤습니다. 민들레나 가축나무 따위의 조그만 생명도 벽에 달라붙어 생명을 틈을 내 인간이라는 고등생명체가 생명의 비밀만 깨달을 수 있다면, 감옥 안에서 내 아내와 친구, 아이들과 같이 있을 수 있을 것 아닌가. 생명에는 안락이 없지 않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있고, 한 나흘은 갈대밭에 있었습니다. 엄청난 그리움에 휩싸여 있다가 엄청난 중독이나 혐오감에 빠져 있기도 했습니다. 청담스님 시자를 했던 분에게 "절대 휩쓸리지 말라. 상이 나타났을 때 절대 외면하지 말라. 중립을 해야 한다. 그게 요체다"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참 어려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냐하면 제 참선을 시작한 지 100일째 되는 날 박정희 前 대통령이 사망했다는 방송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말바닥에서 고무풍선 세 개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 고무풍선은 제 마음의 말이겠죠. 첫 번째 풍선은 '인생무상' 두 번째 풍선은 '안녕히 가십시오' 세 번째 풍선은 '나도 곧 뒤따라

### 참선하면서 극에서 극으로 이동하는 체형 경험 중도 가르침은 차원을 바꾸는 것 곧 개혁 의미 거대한 보편진리와 생명사상이 결합된 것이 '불교'

다. 개뿔철학이요. 그러나 그 개뿔철학이 저에게는 목숨을 거는 문제였습니다. 제가 살았던 감방 몇 개 건너에 기쁨이 장대한 분이 있었습니다. 청담 스님 시자를 했던 분인데 환속한 뒤 수포사건으로 들어온 분입니다. 그 분과 통방을 하면서 참선이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랐더니 몇 가지 가르쳐줬습니다. 가부좌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백일 동안 참선을 했는데 감쪽 놀랐습니다. 시를 쓰려면 인간의 내면을 알아야 합니다. 내면의 아픔이나 후회, 괴로움이 동반되지 않으면 문학으로서의 시는 없습니다. 저도 왜 안다고 생각했는데 천만이었습다. 외부의 괴로움만 생각했지 내면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참선을 하면서 극에서 극으로 이동하는 체험을 했습니다. 한 사흘은 시커먼 뿔 속에 갇혔습니다. 차지철 前 대통령 경호실장이 총살대상 1000명의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저였는데, 그만 좀 저를 미워했다는 증거죠. 하지만 저도 반은 미움으로 부정했습니다. 학생시절 한일골육회당 반대 운동을 할 때 부모님이 중앙정보부에 잡혀가서 전기고문을 10여 차례 당했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고혈압에 반병신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직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새벽에 산에 올라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박정희는 내 눈에 흠이 들어가기 전에 제거하자'. 그런데 '안녕히 가십시오' '나도 곧 뒤따라갑니다'란 얘기가 나온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여기서 제 참선은 깨졌지만 박정희 前 대통령과의 악연은 끊었습니다. 참선 때문에 일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죠. 감옥에서 나와서 생명

운동을 했습니다. 후배들이 배신자 변절자라고 해도 끄떡없었던 것은 그 체험 때문입니다.

불교가 왜 망망이요 동학은 왜 운동자나. 1894년 동학혁명이 일어나고 10년 동안 지리산에서 적어도 10만5000여명의 혁명군이 지리산에 주둔했습니다. 그때 무얼 먹고 살았을까요. 짬뽕이다. 짬뽕이 혁명군을 먹여줬다고 판단합니다. 소문도 그렇습니다. 제 망망이 불교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동학이 무엇인니까. 개화 이전에 자주적으로 스스로 근대화하려는 움직임 중의 하나입니다. 그 배경에 불교가 있습니다. 많은 역사가들이 민중들의 반역적인 활동과 불교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신문의 개혁 실패 이후 금강산과 지리산에 분거지를 틀고 활동했던 '당취'라는 비밀결사운동이 그 예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반역 사건 중 1565년 에 스님이 관련돼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백성들이 배고프고 살기 어렵기 때문에 불교가 관심을 보인 탓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학은 생명의 종교입니다. 불교도 불살생을 중시합니다. 따라서 지구온난화나 생태계 오염 등 전 지구적인 문제에 대항할 종교는 불교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에서는 10년 전부터 온난화 때문에 대재앙이 온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콧방귀를 꺾다가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가 이상하게 변해가는 현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상으로 이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를 지어줍니다. 하나는 19세기 동학계통의 사상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주적 보편진리로서의 불교입니다.

저는 최근 중도(中道)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주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남과 북, 진보와 보수, 좌와 우, 영남과 호남,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기업가와 노동조합, 디지털 세대와 아날로그 세대 등 여러 가지 형태의 갈등이 극단적인 적대관계로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란 무엇입니까? 양극단도 아니고 가운데도 아닌 것입니다. 차원을 바꾸는 것, 즉 개혁입니다. 절집에 가면 삼성각이나 칠성각이 있는데 이것은 민족신앙입니다. 거대한 보편진리와 민족적인 생명사상이 결합된 것이 절집의 전통입니다. 제 결론은 이것이 존중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사진=남동우 기자



### 질의응답

#### △한국의 민주주의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민주주의가 어떻게 가능한가. 성장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요 분배만으로도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민중의 삶의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가 되는 다수와 소수, 유상층과 노동자층이 결합할 수 있는 길이 중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불교의 역할이 굉장히 커져야 합니다.

#### △사회운동 측면에서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지금 법률은 르네상스 이후 인간과 인간사이의 계약이 토대로 됐습니다. 즉 인간중심입니다. 이를 받아들이는 대신 인간과 자연사이의 생명의 계약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단 계약이라는 서양언어 대신 소통, 자비, 사랑으로 인간과 자연사이의 관계를 모색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불교가 모든 사회운동의 탄탄한 기반이 돼 줘야 합니다.

#### △최근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피해가 우려됐는데 바람직한 민족주의란?

-민족을 폐기한다고 세계주의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족적 이면서 탈민족적이어야 하고 지역적이면서 세계적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즉 색이 공이어야 하고 공이 색이어야 한다는 거죠. 양쪽 다 끌어안아야 민족주의만으로도 세계주의만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전 원래 가톨릭이었습니다. 그러나 7년간 독방에서 여러 가지 위협한 고비를 넘기면서 불교 공부했기 때문에 불교가 제 안에 깊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옥에서 나올 때 한 외신기자가 '현재 당신 사상의 현 주소가 어디인가'라고 질문했습니다. 저는 "내 눈의 망막은 불교고 눈동자는 동학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불교에 대한 체험 3가지를 얘기하는 걸로 오늘 강연을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불교를 처음 접한 건 목포에 제했던 외할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세군데 절을 일으킨 대화주였습니다. 목포 유달산 달성사라는 절에서 커다란 종을 조성하는데 그 종에 제 이름을 넣었다고 합니다. 당시 외할머니께서 '우리 올랜이에게 복보다 큰 지혜를 달라'고 부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제 어릴 때 별명이 '올

램이'인데, 제가 하도 울어서 불은 것입니다. 제가 자꾸 우는 것을 보고 외할머니는 '이놈은 크게 출세를 하는 것보다 공부를 할 너석 같다'고 하셨습니다. 눈물이 공부와 무슨 관계인가. 불교적인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 식으로 해석한다면 고통을 모르고서는 불교를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외할머니는 부처님 무릎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뒤로도 불교하면 제 머리에는 눈물과 공부와의 관계입니다. 물론 외할머니께서 말씀하신 공부가 요즘 학생들 공부하듯이 외우는 공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생 공부나 지혜 같은 것들을 전제한 것이겠지요. 불교에 대한 첫 기억은 눈물과 공부였습니다. 불교에 대한 두 번째 기억은 독방에서 7년을 지낼 때입니다.

연출\_안병길 / 기획\_송숙 / 감독\_가산

## "선인들의 뜻을 기려 내고장 맑고, 향기롭게"

# 제3회 경기북부사암음악예술제

## 초대합니다

**일시** - 불기2551(2007)년 5월11일(금)  
**봉축법요식** pm 6:00  
**음악예술제** pm 7:30

**장소** -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주최** - 경기북부불교사암연합회  
**주관** - 남양주·구리시불교사암연합회

**제1부** 봉축법요식 pm 6:00 ~ 7:00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야외공연장

**제2부** 음악예술제 pm 7:30 ~ 9:30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

**제3부** 행운권추첨·뒷풀이 pm 9:30 ~ 10:00

**문의** 031-558-0108

30여년 전부터 찬불가를 통해 불음홍포를 해오던 경기북부지역의 불교연합창단들이 2005년 제1회를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 2006년 2회는 '고양아울림극장'에서 '경기북부불교음악제'를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2007년 '제3회 경기북부사암음악예술제'를 경기북부불교사암연합회 주최로 남양주·구리시 불교사암연합회의 주관과 경기문화재단과 남양주시 등의 후원으로 경기북부 모든 불자와 도민이 동참하는 화합의 한마당으로 개최합니다.

본 음악예술제는 경기북부지역의 8개 연합창단과 예술인들이 참가하여 불교전통문화와 현대음악예술이 어우러지는 이번 음악예술제에 초대하오니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불기2551(2007)년 5월 11일  
 제3회 경기북부사암음악예술제 봉행위원장 철 안  
 집행위원장 금 담

**참찬** - 고양시 불교사암연합회 / 동두천시 불교사암연합회 / 양주시 불교사암연합회 / 의정부시 불교사암연합회 / 파주시 불교사암연합회 / 포천시 불교사암연합회 / 가평군 불교사암연합회 / 양평군 불교사암연합회

**후원** - 경기문화재단 남양주시 (사)천수천안 자원봉사단 현대불교신문 법보신문 불교TV BBS 불교방송 佛敎新聞 (사)삼보불교음악협회 행사문의 - 남양주·구리시 불교사암연합회 전화 031-558-0108

40명 이상 참석하고자 하시는 단체는 미리 연락 주시면 차량지원을 해드립니다.

찾아오시는길: 상기 경품 이미지는 실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길: 남양주 백봉산 묘지서 팔각칠층석탑

경품: 중앙선 도능력 2번 출구로 나와 건너편에서 체육문화센터 순환버스를 이용. 버스 7호선 상행역 2번 출구로 나와 버스 30, 165, 166, 1330, 3330 등을 타고 남양주경찰서에서 하차하신후 바로 아래에 있는 종합관에서 체육문화센터 순환버스가 매시간마다 25분, 45분 2회 출발.